

buddhanews.com

#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데 다 부처님 법

## 25면에서 계속

류가 올라갈 거고 못하는 부분은 아예 파괴시킨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괴를 시키는 게 그냥 불이 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어떠한 나라든지 재앙이 옵니다. 파산이 되고 국토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나쁘게 한다 할 수도 없고 좋게 한다 할 수도 없는 양면이 있으니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의 공덕이 크면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공덕이 크면 임금의 이름이 상천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다, 우리가 마음 가짐가짐을 잘 가집으로써 지혜로운, 생동력 있는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써 돌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가고 든다. 그러나 네 주인공을 발견해라! 네 주인공을 발견할 때는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절대로 틀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 진실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은 더욱더 고단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희 부부야 이년까지 어떻게든 살아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고단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신은 양심 속이지 않고 부처님께 구하지 않게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은 진실하게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오직 진실하게만 살아야겠지요?

항상 얘기해 드린 거요, 오신통이라는 그 불바퀴 속에서 정신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공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문학과와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심리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체물리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의 논문도 나오고, 모두 전체예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 이것만 터득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요.

그러나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자식들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불가사의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기도 약해지고 인간은 자꾸 병도 찾아지고 그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죠. 왜? 자기 있는 것만 다 쓰고 있는 힘을 다 들어서 정신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그냥 어지럽게 과목을 두고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기

가 빠지죠. 기가 없어지면 기를 자주 넣어 가면서 써야 될 텐데 기를 넣을 줄을 모르다면, 꼭 차에 기를 넣을 줄 모르듯이 그렇게 된다면 차가 굴러 갑니까? 지구도 유지하려면 타에서 그 모든 것을, 광력이나 전력 자력을 또 끌어들이어서 우리가 그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돌이 아닐 때에 바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요.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다가, 예를 들어 바다가 물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거기가 다 부어 보십시오, 두드러지나. 풍 한 알갱이에다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전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릇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샘물 나오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 안의 안테나가 바로 샘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수도꼭지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아니다 할 거 없애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퍼 먹고 주고 싶으면 퍼 주고 이러는 거지 여기 수도꼭지를 꼭 쥐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알고 보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처음부터 "이거면 족하지." 처음부터 "이것이 없는데 뭘 줄 게 있어?" 아주 그냥 시험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지해도 넓히지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절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어서, 무리악어서, 고개가 숙여져 두루 자기 나무에서 자기 실과가 무리악어서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 또 씨앗이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라고 그런 거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거지 누가 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니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주 그제,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심

부름을 하는 겁니다. 절을 받는 것도 일종의 심부름이예요. 그게 소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제때에 참, 여러분처럼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가서 턱 사서 갖다 풀어서 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예요. 남이 주는 대로 그저 맛있는 걸 주면 맛있는 거 나눠서 먹고, 맛이 없는 거 주면 맛이 없는 거 나눠서 먹고, 맛이 있는 거면 그분들이 오면 하나씩 더 나눠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때로는 이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냥.

진실한 것은 자기만이 알지 누가 알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 달라는 것도 그건 습이죠. 그것은 인과가 되는 거요. 알아 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만이, 내가 아는 것이 우주 법계에서 아는 것을 뭘 알아 달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뭘 하러 뭘 때문에 바깥에서 그렇게 허우적허우적하고 찾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바깥에서 허우적거립니까? 그것은 부처님에 누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일생을 통해서도, 아니 영원히 죽고 죽고 또 죽어서 가루가 된들 누가 되게 하지 않게 꼭 당신이 해야 한다고 날려 돌아다보고 내가 그렇습니다. 누가 되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 이 겉데기 가지고 얼마나 살기에 헛된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무지렁이가 아니고 만약에 상식이나 학식을 많이 배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았다면, 그리고 잘났다면 얼마나 남한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자기질을 잘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몸서리가 쳐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난 게 잘됐고 못 배운 게 잘됐고, 정말이지 차라리 어디 가서 한 그릇 얼어먹는 게 낫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절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어떠한 교를 가지고 있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서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집가집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고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생각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제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아, 그냥 추측

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큼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뭇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있으니까 찔러 죽이려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칼을 들지도 못할 겁니다.

###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려면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산다면 어떤 것도 괴로울 것이 없을 텐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것, 내 몸, 내 가족, 내 사람이라는 웅졸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중생의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이게 바로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요런 주머니 안에서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살 없는 감옥이죠. 창살이 없으면서도 창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한번 물건을 던져 보면 물건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한번 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서 집에 가는 거나 저 문 바깥을 가는 거나 우주 전체를 돌아가는 거나 태양계를 가는 거나 모두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가깝고 멀고 가 없어요.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보는 거요. 빛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도 없어요.

그러니 이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을, 마음의 묘법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사를 잘못 가면 어쩌나, 손이 있느니 없느니 하거

든요. 또 가셔도 뭐가 어떻게 되면 조상의 탓, 집이사 간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매사 게 다 탓으로 돌아가요. 그게 탓으로 돌아가는 것도 과연이 아니겠지만, 영계성이 있으니까 모든 게 오겠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웅골로와 같은 데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스스로 재성이 돼서 나가요. 그 심령에다가 영을 만 개를 집어넣었다면 두드러지니까?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다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의 법이니까요.

바다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데 두드러지니까? 그냥 옆에서 들어갔다고 빗물 한 방울이 바닷물하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보았어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영에다가 영을 백 개 만 개 천 개,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다 꺼내 봐도 줄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이것은 정말이지 세세생생에 광대무변하고 조상 자식들 다 건지는 공부고, 또 점점 공부할 때 하다 보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공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멸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동글게 돌아가고, 동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진리란 것이 나왔죠.

생활의 어떠한 것도 그 오온(五蘊)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볼 때는 다섯 개가 이렇게 뚜렷하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한 주먹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한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로 한세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써 삼 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데,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속에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속에서 유생 무생(有無生)이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의 그 능력의 빛이 바로 세균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녹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체가 생기고, 또 녹아 버리는가 하면 피해서 그것은 다시 몸이 화(化)해서 다른 길로 창조가 되기도 하니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가고 든다.  
그러니 네 주인공을 발견해라!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제주 약천사 해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신심, 원력

자재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이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리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 해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써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환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 오직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부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는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를 한다고 한다. 세계일보,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붙곤 솟게 한다. 때로 배꼽을 짚게 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살법 절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유 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 해인 스님이 그간 겪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기(佛氣)의 힘이 배어 있다. 법보신문,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